



**444 위국(衛國) 정예장교를 위하여**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방성대 소장)는 21일 교내 충성연병장에서 제60기 444명(여생도 52명)의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주원영 영천교육장, 마영렬 국립영천호국원장과 가족 2000여명의 축하 속에 거행된 입학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입학 및 진학신고 ▲우수자 상장 수여 ▲입학증서 및 학년장 수여 ▲분열 순으로 화려하게 진행됐다. 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일반학과 군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해 정예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58기 졸업생은 478명이다. (사진 = 교내 충성연병장에서 60기 생도 입학생들의 분열 장면, 오른쪽은 직접 학년장을 달아준 어머니가 (아들)생도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박한우 기자

## 영천시, 청렴도 신뢰회복 안간힘... 3등급 탈피 청렴시책 발굴 박차

공직자 내·외 부패인식도 하위 4등급 급선무  
 청렴 서약식, 수의계약 상한제, 우수 벤치마킹  
 7급↓아침 산책, 간부들 부당 지시 여·부 확인

영천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3등급을 탈피해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효율성 높은 청렴시책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받아, 2021년과 같은 결과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천시가 스스로 종합청렴도 3



시는 권익위 2022년도 '공공기관

등급을 밝힌 것은 지난 1월 26일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후 21일 만이다.

앞서 영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직전 년도와 같은 3등급을 받았으며 공직자 내·외부 부패인식도는 여전히 하위 4등급에 머물렀다.

연초 종합 3등급(공직자 내·외부 부패인식도 하위 4등급) 발표 당시 일각 시민들은 "종합청렴도 3등급보다 공직자 부패인식도 하위 4등급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연초부터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일상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는 신년화두 적토성산(積土成山)의 마음으로 연초부터 전 간부공무원은 청렴서약식 및 결의대회를, 전 부서에서는 자체 청렴서약식을 실시한 바 있다.

영천시는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라디오 방송', 공직자가 직접 만들고 청렴의지를 시민과 공유한 '청렴카툰 순회전시' 등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기문 영천시장은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산책을 함께 하는 '시장과의 대화'를 추진해 근무 중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는 것.

최기문 영천시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며, "2023년에는 일상속 청렴실천부터 시작해 강도 높은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등급 상승을 이뤄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제3회 전국동시 농·축·산림조합장선거, D-13... "반칙없는 깨끗한 경쟁해야"

영천시선관위-농협영천시지부 합동 공명선거 캠페인  
 후보 접수 마감, 9개 조합 19명 등록 2.1대1경쟁을  
 금호·영천축협·산림조합 세 곳 단독 무투표 당선  
 임고농협, 김주환·이규철·이현준·최용수 4파전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훈)와 농협영천시지부(지부장 정재용)는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지역 농·축·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영천공설시장에서 합동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반칙없는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지역 9개 조합 선거사무 위탁을 받은 영천시선관위에 후보 접수 마감일인 22일 오후 6시 현재 임고농협이 4대1, 북안·고경이 3대1, 신녕과 화산·영천농협이 각 2대1의 경쟁을 나타내고 금호·산림·영천축협이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던 영천(현 조합장 성영근)·화산(정낙은)·신녕(이구권)에는 박상대·한상조·박영진 각각 후보등록을 마쳐 2대1의 경쟁을 하게됐다. 반대로 금호(김천득)와 영천축협(김진수)은 윤정락·조규수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됐으나 중도에 포기하면서 무투표 입성할 예정이다.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본인 이 외에 배우자 등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대신 할 수 없다. 투표일은 오는 3월 8일이다. 장지수 기자

고경농협			금호농협		북안농협	
이상웅	이진홍	이상혁	김천득	김진구	김창현	박찬재
산림조합		신녕농협		영천농협		영천축협
이성기	박영진	이구권	박성대	성영근	김진수	
임고농협				화산농협		
김주환	이규철	이현준	최용수	정낙은	한상조	





# [제1보] 북안 '희망의등지' 전 원장 불·탈법 의혹... "영천시 소극 행정 사태 키워"

지체장애인협회(중앙) 연1회 의무 감사 한 번도 안 해  
전 원장 B씨 고소 당해-공금횡령·폭행·갈취·규정위반 등  
장애인 폭력 신고에도 인권기관 꿈적 안 해  
B씨, 의혹 전면부인-"마녀사냥. 취재 없이 일방적 보도 유감"  
영천시, B씨에 보조금 부정수급(3170만원)축소 환수  
허위자료 행정처분 벌금 50만원 "숨방망이 처벌"



경북 영천시가 올해 운영비로 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북안면 소재 지적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희망의 등지'(이하 시설) 전 원장(시설장) B씨(65)의 불·탈법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 건물(토지 포함)은 전 원장 B씨 명의다. B씨가 협회(중앙)로부터 지난해 3월11일 제명되고 새 원장이 임명되면서 B씨가 시설 임대료(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를 요구하자 이 임대료를 협회가 이용자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직 직원(A씨)과 장애인(보호자), 협회 등은 오히려 B씨에 대해 공금횡령, 폭행, 협박,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연이어 비리를 폭로하자 이번에는 B씨가 역 고소를 준비하는 등 북마전 양상까지 전망된다. B씨는 "일부 언론들이 (자신에게)취재 한번 없이 허위 보도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

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 문제는 지난해 2월 전 원장 B씨(협회 영천지부장)는 발달장애인협회 정관을 위반한 문제로 제명되면서 협회(중앙회)가 같은 해 9월1일 B씨 대신 C씨(경북협회장)를 영천시지부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불이 붙었다. B씨는 협회 영천지부장이면서 '희망의 등지' 원장으로 겸임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 등이 B씨를 공금횡령, 사기 등으로 영천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올해 1월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A씨 등은 지난 9월 B씨를 재(추가)고소한 상태다. 경찰의 공금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은 영천시가 문제의 '바우처사업' 재원은 "보조금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문서)을 했기 때문이다. 영천시가 영천경찰서에 잘못된 답변을 제공해 경찰서가 이를 인용함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A씨 등은 판단하고 있다. 영천시가 봐

주기식 느슨한 행정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면 영천시는 지난해 8월 B씨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허위자료 제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희망의 등지 '바우처'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로인해 시는 지난해 9월1일 B씨에 대해 부정수급금 3170만원을 환수조치 하는 한편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면서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와 복수의 관련 공무원들은 "시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은 협회(중앙)에 있다. 연1회 정기 감사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감독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자 뒷북 감사로 모든 책임을 B씨와 영천시에만 떠넘긴다"는 반박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일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

며 핵심 당사자인 자신에게는 본지 외에 어떤 언론도 취재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은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내쫓기 다시피 나왔다. 전 원장(B씨)이 느닷없이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고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B씨는 일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나는 시설을 폐쇄할 권리도 없고 사업장 폐업 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에 반드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본지에 전해 왔다. 더군다나 그는 "시설의 허가과 폐쇄는 영천시의 권리며 저는 원장직을 그만뒀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고유번호(증)는 당연히 말소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유지 및 운영은 새로 부임한 원장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에게 취재 한번 없이 제가 사업장 폐쇄·시설폐쇄 했다는 보도는 허위다"며 일부 언론 보도 형태를 맹비난했다. 협회는 "시설이 아닌 영천지부 통장에서만 횡령금액이 너무 크다. 수년간 이같은 비리가 지속됐다. 제명된 후에도 남은 금액을 일부 착복했다. 민·형사 포함해 B씨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보호자들은 "'희망의 등지'는 비리 온상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 원장은 CCTV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폭력혐의로 경북장애인권익보호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동시에 영천시도 "장애인 인권 및 폭행혐의로 같은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권익보호기관과 영천경찰서 등은 수사 개시는 물론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장애인권익보호기관 한 관계자는 "사건 접수는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해 드릴 수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장지수 기자

# [제2보] 비리 의혹 '희망의등지', 영천시가 비호했다... 특혜 의혹, 불법 알고도 묵인했나

경찰에 허위 정보제공... "전 원장 무혐의 처분" 최기문 시장, 전격 7000만원 상수도 공사 지시 시설 내 전 원장 개인 수익사업 알고도 쉬쉬 해

비리 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천시 북안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희망의등지' 사태(본지 15일자 사건 고발)와 관련해 "영천시가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체장애인 협회(경북)와 본지 제보자 등은 "엄청난 '희망의등지' 비리를 알면서도 영천시가 숨방망이 (행정)처분에만 그쳤고, 앞서 회계처리와 이용료 부정사용을 알고도 지금까지 쉬쉬해오다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또 "전 원장(이하 B씨)의 불법 의혹에 대해 '영천시에 여러 차례 제보하였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폭로했다. "수천만원의 상수도 시설도 최기문 영천시장 한마디에 '뚝뚝' 해결됐다. 특히 공무원은 부정 수급으로 3170만원 환수와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당국에는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무원이 경찰서에 허위 내용을 제공(문서)해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된 B씨가 무혐의 처분 받게 되는 등

의도적으로 비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자 「'희망의등지' 전 원장 각종 불·탈법 의혹...영천시 '와자지결' 본지 보도 후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추가 취재를 분석(종합)하면 B씨에 대한 이들의 '영천시 비호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 먼저 지난해 7월1일 고소된 B씨에 대한 보조금횡령 사건은 영천경찰서의 유관해석 질의에 영천시가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이용되는 국·도비 '바우처' 사업은 사회서비스제공 비용으로 '보조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하여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 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보조금이다. 또 지난2020년 4월 B씨가 시설에 상수도 필요성을 제기하자 최기문 시장이 "상수도 공급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 최 시장의 지시로 7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원관 330m 공

사와 신규(70m) 상수도공급(자부담1000만원) 공사가 동시에 7월1일 전격 착공해 15일 만에 준공됐고, 다음 달 20일 최 시장이 직접 시설에 내방해 준공 축하식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는 "특혜가 아니다. 비록 가구 수는 단독가구 시설이지만 30여명(장애인20, 종사자10)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당연히 상수도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제보자 등은 "수년간 민원에도 꿈쩍 않던 영천시가 최 시장 말 한마디에 뚝뚝 7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기념식까지 가진것은 시설을 비호하는 특혜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희망의등지' 2021년 영천시의 운영비 보조금 결산액은 1억400만원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영천시의 올해 운영 보조금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2년 사이 6배나 훌쩍 늘어난 것도 특혜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영천시가 미리 파악한 불법 의혹은 차고 넘친다. 시설 이용자가 영천시가 마련한 시설이용계약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여기서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제7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시설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방해해 뒤늦게 이용자들의 항의와 불법 논란이 일었다. 설사 임차료가 아닌 이용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월 이용료의 1년 분을 초과할 수 없고, 수납의 한도액은 반드시 영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조차도 영천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오히려 묵인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시설 이용료에서 B씨가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가도록 허용했다가 말썽이 일자 같은 해 4월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면서도 행정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보자 등은 "B씨가 비영리 시설 희망의등지 내에서 별도 마켓 등 개인사업자(333-09-\*\*\*\*\*)를 개설해 이용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가장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했다"고 말썽이 일자 폐업했다"고 밝혀 개인 영입이 사실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금납부 의무를 위해 반드시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탈루 의혹을 받게된다. 엄연한 불법이다. 본지 확인결과 이같은 사실

을 영천시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보자 등은 영천시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해 B씨의 개인통장(농협) 등을 확인해 그 전모가 밝혀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의등지'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모두 영천시 외의 거주자로 알려졌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반드시 시설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 인구 늘리기와 주소 옮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영천시는 외지인의 영천 시설 이용을 위해 올해에도 6억5000만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불법 사실이 인지되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고 밝혀 언론 보도 후에야 뒤늦게 뒷북 수습 행정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반면 B씨는 "상수도는 특혜가 아니다. 최 시장님을 끌어 들이면 안 된다.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영천시의 승인을 받았다. 일부 위법 사실이 있다면 책임은 지겠다"면서도 "사실 원장이 다 알수는 없다.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몰라서 발생한 일들을 두고 횡령이니 불법이니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장지수 기자



# 금호새마을금고 신종근 산악회장, 거류산 아래서 “야호” 만세삼창

### 회원 50여명, 대구군부대유치·금고발전·회원단합 기원

금호새마을금고 산악회(회장 신종근)는 지난 18일 경남 고성 거류산을 선택해 올해 총회를 산행으로 우의를 다졌다.

산행에 앞서 산악회는 시산제로 회원 안녕을 기원하고, 산행 후에는 엄홍길 전시관도 관람했다.

이날 거류산 입구에서 거행된 새

해 시산제에서 신종근 산악회장 외 회원 50여명은 거류산을 향해 “야호!” 만세삼창으로 영천시 대구군부대유치와 금호새마을금고 발전, 자연보호 및 회원 안녕을 기원했다.

금호새마을금고(이사장 김종열)는 올해 5월1일로 창립 52주년을 맞게 된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에 60억원 출연한 대구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재원 활용



### 서민경제 위한 저금리 지원 최초 금융기관 협력 사례

지역 최대 규모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 경북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60억원을 출연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에 나서 준 최초의 금융기관 협력 사례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은행은 도청 접견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특별출연금 60억원에 대한 약속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출연금 60억원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용자에 대한 저금리 정책지원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정책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이 외에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1조원 규모, 2023년 1분기 실대출금리 4.44%)과 경상북도소상공인육성

자금(이하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해 2.44%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소진 시 일반보증부 대출(5.88%)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에는 3.88%의 이윤율이 가능하다.

장지수 기자

# 이만희, 3·8전당대회 탈락에 지역민들 이대로 안돼, 아쉬움 토로

### 이만희, “의정활동은 높게 평가, 인지도 없어” “당 지도부에 반드시 T·K 최고위 입성시켜야” “김재원 후보 단독 본선행 T·K 체면은 살렸다”

이만희(영천, 청도) 의원이 국민의힘 3·8전당대회(이하 전대) 최고위원 후보에서 탈락되자 기대를 모았던 지역 정치권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3·8전대 최종 본선주자가 결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대 본선에 오를 당 대표(4명), 최고위원(8명), 청년 최고위원(4명)을 뽑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공개했다.

T·K지역에서는 당 대표 후보를 내지 못한 채 최고위원에 두 명의 후보자가 도전했다. 원내 이만희 후보를 비롯해 원외에서 김재원(경북 의성) 전최고위원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는 본선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이만희 후보를 탈락시키고 김재원 전최고위원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가까스로 T·K지역 체면은 살렸지만 지역민들의 실망은 적지 않아 보인다.

당초 지역에서는 출마 인물난에 시달려오다 재선 의원으로 유일한 원내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당연히 본선에는 입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본경선 당대표 진출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4명이 이름을 올렸고 최고위원 8명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로 낙점됐다.

또 청년최고위원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4명의 후보가 최종 본경선 티켓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후보자 지지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득표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본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나·다순 명단으로 발표했다. 고 밝혔다.

이번 컷오프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6000명(0.71%)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발표한 이번 3·8전대 선거 인단수는 총 83만9569명이다. 전체 당원 구성 중 39.69%가 영남권이고 T·K지역은 21.03%(대구 6.72%, 경북14.31%)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37.79%로 이는 지난 2021년 전대 대비 수도권은 5.49%p 늘었고 반대로 영남권은 6.52%p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이날 이번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서 이만희 후보가 8명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그나마 김재원 후보 단독으로 본선에 올라 겨우 T·K지역 체면은 살렸지만 지역 정치권은 실망을 넘어 당 내 지역 대변자가 없다는데 걱정부터 앞세웠다.

### <당 대표 후보>



### <최고위원 후보>



### <청년최고위원 후보>



특히 '이준석계' 천하람(당대표) 후보와 김용태, 이기인,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자 4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앞선다. 경북당협 관계자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만희 의원 컷오프 탈락은 사실상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

응이다. 이번 전대 지역을 대표할 최고위원 유일한 원내(재선) 후보라는 점에서다

지역 당협 관계자 A씨는 “이만희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은 높게 평가되지만 너무 조용하고 전국 인지도가 낮은데다 인지도 상승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을 이번 탈락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당초 출마 인물난에 시달리다 교육지책으로 등 떠밀려 출마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김재원 전최고위원이 본경선에 올랐으니 지역 책임당원들의 마음이 국정 안정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며 이 후보의 탈락을 위로했다. 그러나 구미 지역 당협 H씨(62)는 “이 후보가 유일한 원내 재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투쟁력이 부족한데다 존재 자체를 모를 정도로 지역 책임당원들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없었다.”면서 당연한 탈락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지역 책임당원 핵심 관계자 B씨(58, 경북 김천)는 “불식간에 6000명으로 당 지도부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당 선관위의 안이한 선거관리다. 당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고 여론 결과 비공개도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다.”며 이번 예비경선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렇게 된바에 이제 윤정부 성과와 오는 총선 및 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에 T·K 최고위 입성을 위해 당장 지역 책임당원들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지수 기자



# ‘영천성수복대첩’ 지역 관내 초등 3년 교과서 지역편에 등재

만화 형식으로 1592년 임란 의병역사 이해  
영천시 올해 431주년기념식, 의례행사 격상  
영천성탈환도 중요... 빼앗긴 패전도 알아야

임진왜란 선조(宣祖)25년(1592년) 7월24일부터 28일(음력)까지 나흘간 당시 조선 의병과 왜병 간 영천읍성을 두고 탈환전투가 벌어졌다. 임란 최초 대규모 육지 전투로 불리는 ‘영천성수복대첩’이다.

영천시는 9일 ‘임란영천성수복대첩’이 영천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편에 소개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의 교과과정 2단원 중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부문에 실린 ‘임란영천성수복대첩’은 만화삽화 형식으로 첨부되어 약 700부가 인쇄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지역 이야기와 역사 등은 "1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다"면서 이번에는 "영천시 문화예술과 등의 협조를 받아 12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해 관련 자료를 추천받고 심사해 등재 하거나 탈고한다."면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1년 후 다시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일본사와 임란사에 정통한 본지 김문길 박사는 영천성수복 보다는 영천성을 어떻게 빼앗겼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영천성이 함락된 때는 1592년 4월 22일 오후, 늦은 저녁 무렵으로 확인하고 있다. 임진전쟁때 제2진으로 부산포에 침입한 가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 병역 2만2,800여명이나 되는 거대한 부대가 1592년 4월 14일 동래성을

함락시킨 후 2진을 양산, 경주, 영천에 침입시켜 이들 만에 영천성을 빼앗았다. 고 밝혔다. 그때 영천성은 제대로 싸움도 하지 않고 성이 점령된 패전으로 기록했다.

영천성수복전은 ‘선조실록’에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3대 패승전으로 평가돼 있다.

이 전투는 당시 권응수·정대임·정세아 등 의병장들의 지휘아래 하양, 의흥, 자인, 경산, 경주, 신령 등지에서 소박한 양민 3,650여명이 모여들어 창의의용군(倡義義勇軍)이라는 조직으로 왜병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마침내 28일 영천성을 탈환한 전투다. 이날을 양력으로는 환산하면 9월 2일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교과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와 선조들의 용기 있는 정신을 가르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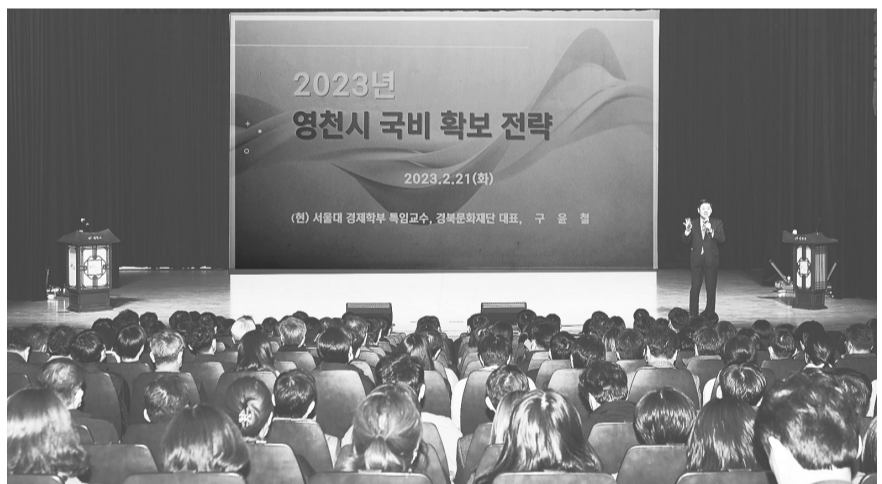
영천성을 되찾은 “영천복성 전투”



\*영천복성 전투: 1592년 왜군에게 빼앗긴 영천성을 의병의 힘으로 다시 되찾은 전투로 '영천성 복성 전투'라고도 함. '창의의용군'의 이름이 더 높은 용감한 군대라는 뜻으로, 김책연합의병부대의 이름임

## 영천시,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 국비 확보 전략 특강

영천시는 21일 공무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민회관에서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초청해 2023년도 공모사업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구 대표의 특강 주제는 '2023년도 영천시 국비 확보 전략'이다. 특강에서는 지정 및 공모 방식, 국비 확보 방안과 영천만의 특수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강에서는 또 철저한 사전 기획 및 설계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논리확보 및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 영천시체육회 지역 16개 읍·면·동 새 체육회장 임원 구성 완료

임기2~4년, 매월 1회  
마지막 월요일 정기회

민선2기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 이하 지역 16개 읍·면·동 16명의 새 체육회장 인선이 사실상 완료됐다.(표 참고)

20일 영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임고면체육회가 총회를

개최하면 정연원 새 회장이 선출될 예정으로 사실상 지역 16개 읍·면·동 각 체육회 임원 구성이 모두 완료된다.

지역 읍·면·동 체육회장 중 현재 가장 장기 회장직을 맡고 있는 지역은 완산동(회장 박동운)으로 2018년11월부터다. 그 외에는 임기가 1년 남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올해 초부터 새로 교체됐다.

앞서 민선2기 영천시체육회장은 박봉규 회장이 지난 2월 초 연임에 성공하면서 새 임기 4년을 시작한 반면 각 읍·면·동 체육회장의 경우 임기가 2년~4년까지 각각 다르다.

이들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한 차례 정기 월례회를 갖는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16개 읍·면·동 체육회장

연번	단체명	성명	임기	연번	단체명	성명	임기
1	고경면	김대원	23.02.14~	9	완산동	박동운	18.11~
2	금호읍	전정석	22.01.23~(22.4.19위촉)	10	임고면	정연원	23.2.27~
3	남부동	안재우	22.01.26~(22.4.19위촉)	11	자양면	정성우	23.2.10~
4	대창면	김병현	23.2.20~	12	중앙동	이병호	23.1.16~
5	동부동	김동희	19.01.18.	13	청통면	장종길	23.01.16~
6	북안면	성희기	21.01.03~	14	화남면	추대수	20.12~
7	서부동	김종구	22.04.29(22.7.5위촉)	15	화북면	김일창	23.2.17~
8	신녕면	윤선일	19.01.28~21.01.01~	16	화산면	박강서	22.02.01(22.4.19위촉)

##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받아보세요

3월 2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비는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월 1만9250원) 등으로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 이하)인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생은 연 41만5000

원(지난해 대비 8만4000원 인상), 중학생은 연 58만9000원(지난해 대비 12만3000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65만4000원(지난해 대비 10만원인상)이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돼 내달 2일부터(3월 17일까지 학기 초 집중 신청기간) 신청가능하고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김효정 기자

##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일부구간 개선

### 등산로 일부구간 개선

영천시 그린환경센터는 시민들이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및 잔디공원에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개선 공사로 기존 170m에서 130m 연장하고(등산로 구

간 총 거리 3.3km) 해당 구간은 펜스와 야자매트를 설치했다.

새로 조성된 등산구간은 영천시내 주간 경치 및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또 그린환경센터 잔디공연장에 설치됐던 버스휴게실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개방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김효정 기자





# 경북도의회, 경북 기업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ESG 경영 도입 필수

### 「경북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 최종 영역보고회 지속가능 발전위해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북도의회가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재)문화엑스포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회」(대표 연구식 의원, 포항)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기업의 ESG 경영현황 분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추진돼 이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식 대표 의원은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ESG경영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ESG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은 물론,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 지원 뒷받침 역할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식(포항4), 배진석(경주1), 서석영(포항6), 이동업(포항7),

정경민(비례), 차주식(경산1), 최덕규(경주2)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장지수 기자



##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포항 미래 100년 준비 신성장산업 동력확보 총력

### 2024년 국비 사업 발굴 161개 1조 220억 원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내년 신성장산업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

김 부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포항의 100년 대계를 위해 정부 예산 주요 투자 중점 방향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맞춰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당위성 등 사업추진 설득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 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발굴한 신성장산업 등 161건 1조 220억 원, 신규사업 44건 1278억 원, 계속사업 117건 8942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미래 신성장산업을 포함

해 △SOC 분야 3878억 원 △연구개발(R&D) 분야 2240억 원 △복지·환경 분야 1858억 원 △문화·관광 분야 217억 원 △농림·수산 분야 1337억 원 △기타 분야 690억 원 확보에 집중한다.

이날 보고회 사업들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로직스 기반 동물 의약품 R&BD 사업 △국립 포항 전문 과학관 건립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위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부시장은 또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재난 방재 인프라구축 사업의 국비도 빠짐없이 챙긴다. 장지수 기자

## 경북교육청, 안전한 등·하굣길 안심알리미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502개 초등학교, 5만4326명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자녀 및 저학년 등 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을 우선 지원한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가 학교에 안전하게 등·하교했는지를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만8876명보다 5450명 증가한 5만4326명의 학생에게 지원해 안전에 세심히 신경 쓸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의회, 튀르키예에 온정의 마음 모아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832만원 전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15일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 성금(832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리아접경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의원 6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지진 피해 온정의 마음을 모아 832만원을 모았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

째로 많은 규모의 파병으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있게 만든 해외 대한민국으로 불린다.

또 2001년 경상북도와 튀르키예 불사주가 자매결연을 맺고, 2013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개최 하는 등 경상북도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장지수 기자



## 산림자원개발원, 숲해설 프로그램 3월~11월까지 무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원장 임시영)에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숲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상시 운영한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숲 체험활동을 통해 치유적 기능과 함께 유아 청소년에게는 사회성 발달과 창의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산림자원개발원은 정기형 및 수시형 숲해설 총 598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아 및 일반인 8587명이 참여했다.

올해에도 산림자원개발원 부지 내 생태숲과 산림과학박물관 야외 광장 일원에서 정기형과 수시형로 나누어 연령별, 계절별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기형 프로그램은 지역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별도로 모집 및 운영하며 프로그램 희망 교육 단체는 위탁 업체인 꿈꾸는 목공학교 사회적협동조합(☎054-634-7760)으로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시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방문 3일전까지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gbforest](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gbforest)) 및 위탁운영 업체를 통해 예약신청 하면 된다.

한편, 산림자원개발원은 영지산 자락 생태숲 부지 일대에 2024년까지 3년간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지산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김효정 기자





# 청도 대표 봄나물 '달래' 출하 시작... 매년 60톤 생산 5억원 소득 올려

### 김하수 군수, "고품질 봄나물 생산에 지속 지원하겠다"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미나리와 함께 군의 대표 나물인 '달래' 출하를 개시했다.

김하수 군수는 15일 '달래' 수확 현장인 각남면 구곡달래작목반(반장 박병길)을 방문해 '달래'를 들어 보이며 출하를 개시한 농가를 격려하고 이같이 밝혔다.

달래는 겨우내 지쳤던 기력을 회복하고 식욕부진이나 춘곤증 예방에 좋으며,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다.

특히 '달래'는 돼지고기와 음식 궁합이 좋아 청도미나리와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다.며 군은 덧붙였다.

구곡달래작목반은 2018년에 결성해 현재 20개 농가에서 60톤을 생산해 매년 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 '달래'를 봄의 전령 봄나물로 특화하여 미나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 고품질 나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한우 기자



## 한복문화·산업 융합 플랫폼 경북도, 경북한복문화창작소 개소

### 한복 전시·제작·판매 연구개발 및 체험까지

경북도는 22일 한국한복진흥원(상주시 함창면 소재)에서 한복문화콘텐츠를 통해 지방시대 및 세계화를 위해 경북 한복문화창작소 개소식을 가졌다.

경북한복문화창작소는 한국한복진흥원의 한복전수학교 내 설치돼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한복 생산을 위한 실무교육, 일반인을 위한 체험교육으로 진행된다.

6개 제작실로 구성된 창작소는 △한복섬플제작소 △한복창업개발소 △한복패턴제작소 △재단실 △그래픽영상실 △라이브커머스 촬영스튜디오가 있다.

창작소는 한복 제작공정의 현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레이저절단기, 스마트자수기, 특수봉재기(인터록, 전자단추달이), 패턴출력기, 패턴입력기 등의 전문 기자재를 활용한다.

또 맞춤형 제작대를 설치·제공해 한복 디자이너의 작업환경을 최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전북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와 함께 선정돼 작년 6월부터 내년 12까지 3년간 총 13억원(국비 10억, 도비 3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1차년도에는 한복문화창작소 기반시설 조성 △2차년도에는 한복문화창작소 세부 프로그램 운영 △3차년도에는 자체 보유 역량 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한복문화창작소 기반시설 161평, 제작실 6개소를 조성하고 경북도내 총 66개 초·중·고교 학생 3236명을 대상으로 한복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영석 상주시장, 김덕기 경북문화재단 부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 그리고 지역 한복인들과 한국한복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한복문화창작소 개소를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주요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 포항시 "글로벌 배터리 허브도시 도약 발판 마련했다"

### 도내 기업·산·학·기관... 이차전지 구축 MOU 2030년까지 양극소재 100만t 이상 생산 계획

포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도내 이차전지 기업, 산·학·기관 대표 등 총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항시장을 비롯해 경북도지사, 포항시의회 의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표, 포스코케미칼 설비투자실장, 해동엔지니어링 대표, 한동대 총장, 포항대 총장(직무대행),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흥해공고 교장, 위덕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에너지머티리얼즈, 우전지앤에프,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6개 기업과 △선도기업

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양극소재 100만t 생산 체계 구축 △이차전지 기업 간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대중소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구축 등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적극 나서고, 포항시와 경북도는 교육혁신과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돕는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및 인

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양극소재 생산량을 현재 25만톤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만t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양극재 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이차전지 소재 초격차 확보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허브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2월 27일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접수 마감 후 첨단전략산업 기술 영위 여부, 집적화 효과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세부평가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한우 기자



## 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 자기계발 온·오프라인 사용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앞서 2017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6년간 108억의 예산으로 1만 29명을 지원했다.

대상자 선정시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

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사진촬영) 등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에 방문해 신청·발급 받아 행복카드로 100만원을 연 2회 분할 지급(최초 선정시 +3개월 간속시) 받는다.

도는 올해 127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2021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

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만19세~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 기준 중위소득 130%(2,701,260원),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신청은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효정 기자



# 경북도 생활 밀접 안전정책 발표...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3557억원 투자

### 민간건축 내진평가 인증수수료 지원 자연재해 예방사업 3557억원 투자 디지털기반 노후시설 안전관리 강화 전 도민 무료 안전보험 보장 확대

경북도는 2023년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가지 정책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전 도민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경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과 지역에 등록해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무료보험을 시행한다.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

만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최대 2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6억 5000만원을 더해 13억원을 투입한다.

교량, 산사태 취약지, 다중이용건축물 등 도내 84여 개소의 노후·위험시설에 센서를 설치해 위험 요인

파악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 된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3557억원 투자, 도내 427개 지구 정비에 도는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등 212지구 3489억원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4지구 1162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2지구 471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0지구 312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7지구 11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지구 230억원 등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으로는 215지구 68

억원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58개소 40억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27개소 20억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개소 3억원 △지진가속도계측 경북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3개 시군 2억원 등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대비 약 14.5%(451억원) 증액된 3557억원(국비 1141억, 지방비 2416억)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한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에 도는 올해 사업수수료 증가로 전국 광역자치체 중 가장 많은 국비 6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한다.

매년 4월경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 실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광역시와 경북도만 유일하게 자부담 없이 추진 중이다.

장지수 기자

## 경북소방본부,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금지 당부

### 화재발생시 혼자서 불끄려 하지 말고 119신고

경북소방본부가 봄철 들불발생을 우려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총 26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논·밭 등 임야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들불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0%(241건)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주의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을 태우다 발생한 것이 절반 이상인 124건이다.

또 지난 5년간 산불 544건 중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40%(221건)에 달해 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소방당국은 최근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논·밭두렁에서 화재 발생 시 불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대형 산불과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 신중년일자리 31명 '행복설계사' 모집

경북도는 복지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안내하고, 원하는 복지를 적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설계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아업 공모사업으로 올해 총 6억 9000만원을 들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참여자는 만 50세이상 ~ 70세미만 신중년 경북도민으로 사회복지·보건으로 분야 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건·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또 기 공고된 경북행복재단 1명을 제외한 시군 30명에 대한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경북행복재단 홈페이지 올라

인으로 접수받는다.

행복설계사는 경북행복재단,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성주군 7개 시군으로 31명(경북행복재단 1명, 시군 30명)을 선발해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웃사촌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찾!찾!찾! 행복설계사 사업'은 그간 중앙·확실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 경북 실현을 위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www.gb.go.kr) 및 경북행복재단 홈페이지(www.g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정 기자

## 경북자치경찰위, 청소년 불법 유해업소 척결 전격 의결

### 단속 및 위반 정보 신속 시·군·구청에 통보키로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청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북경찰청에 이행을 주문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의결은 앞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의결사항 효율

성을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표시(스티커 등) 미 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 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신속 통보는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지수 기자



## 경북농업기술원, 연구개발 과제계획 심의회

### 식량 안정생산 및 디지털농업, 수출용 품종 육성 등 연구 추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학교수, 수출용 품종 육성 등 연구 추진

식품 원료 개발' 등 다년차 55개 연구과제 심의를 통해 올해 79건의 기관 고유과제를 수행한다. 그 중 24건은 신규과제다.

대표 신규과제로는 '식량대전환을 위한 경북 권역별 밀 적합 품종 선발', '국산 통밀 활용에 따른 용도별 가공품 품질 개선 연구', '미나리 종묘 예취용 농기계 생략화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번 심의회는 ICT 융합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농업,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K-면역 식품개발,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수출·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주요 연구방향으로 정했다.

기술원은 'K-면역 건강 기능성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비타킹' 딸기('설향' 대비 과중이 1.5배, 비타민C 1.4배, 엽산 1.1배) 품종을 개발했고, '알타킹', '싼타' 품종 통상 실시를 통해 86만주를 보급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 월 최대 20만원

영천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대상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은 임차보증금 5000

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희망자는 올해 8월까지 해당 기간 내 수시 접수되며 서류를 갖춰 복지포(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영천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대상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희망자는 올해 8월까지 해당 기간 내 수시 접수되며 서류를 갖춰 복지포(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특별기획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대탐방③

# 병와 이형상, 반평생 영천서 저술활동... 영천서 병와학 초석 다져야!

〈瓶窩〉 〈李衡祥〉 〈瓶窩學〉

영천신문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대탐방 연재를 재개한다. 이번이 ③째다. 지난 2020년 2월② 후 만 3년만이다. 국보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영천이 공동으로 학술·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탐라순력도로 제주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본지는 영천 박규홍 병와연구소장, 이임괄 병와공중회 총회장, 이학용 청권사 부이사장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17~19일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선생의 수고본을 관리하고 있는 후손 이임괄씨와 전 영천신문 강병찬 편집국장의 도움을 받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매개로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지 제주도의 변화를 재확인해 본다. 본지 협조 강병찬 기자는 "병와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선생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매개로 제주와 경북 영천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말 한다. 반면 제주에서는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민간추진협력단장),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용범 제주민속자연사 학예과장, 강창언 제주도에촌 대표, 고영철 전 교장 등이 영천 일행을 만나 "병와 선생은 1년 만에 어떻게 제주에 대한 방대한 기록물을 남겼을까?"를 두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320년 전 1702년 3월, 병와 선생이 제주목사로 부임한 후 제주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을 되새기며 영천의 인물 병와 선생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자료 및 대담 협조 : 영천 박규홍 병와연구소장, 이임괄 병와공중회 총회장, 이학용 청권사 부이사장, 제주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민간추진협력단장),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용범 제주민속자연사 학예과장, 강창언 제주도에촌 대표, 고영철 전 교장, 언론 강병찬 본지 전 기자]

제주목사였던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이하 존칭 생략) 선생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보물 제652호 중)와 병와금(瓶窩琴, 국가민속문화재 제119호 중)만 들고서 쫓기듯 육지로 향하는 배에 오른 때는 1703년 5월 쯤이다.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재임한 기간은 불과 15개월. 조정에서 목사로서 유배자(오시복 전 이조판서로 추정)를 도왔다는 이유로 탄핵으로 그를 파직 했으니 그 지엄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병와 선생은 재임했던 1년 동안 한라장축(漢拏壯囑, 제주전도)을 포함한 탐라순력도 41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백과사전인 남한박물, 공문서인 탐라장계초, 문집인 탐라록을 저술했다. 이 밖에도 날인에 사용했던 각종 인장, 한라산 고사목으로 만든 병와금(거문고), 각종 간찰(簡札, 편지) 등 방대한 자료를 남겼다.

제주도는 5만 년 전 화산대폭발로 형성됐다고 한다. 이후 선사시대, 고대, 중세로 이어오면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졌던 탐라



탐라순력도 표지, 비단 바탕에 금가루가 묻어 있어 임금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병와 이형상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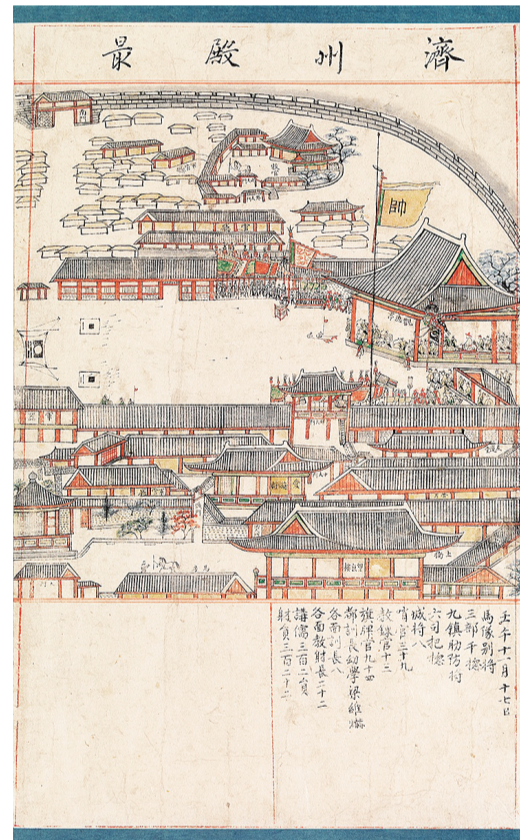
병담범주, 현재의 용연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한라장축, 최고의 제주지도로 꼽힌다.



호연금서, 병와 선생이 제주를 떠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제주전치, 제주목 관아에 대한 상세한 그림이 담겨 있다.

국(耽羅國)이 조선 초기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현재의 제주목관아 자리가 탐라국 도성이었다.

그러나 탐라국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다. 다만 문인들이 문집으로 기록을 남겨 당시의 역사와 문물들을 엿볼 따름이었다.

### ◇국보 승격 심사 중인 탐라순력도

현대어로 번역돼 출간된 탐라순력도(영인본)는 제주지역에서 발행된 단행본으로는 최대의 부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앞으로 추가 인쇄가 충분히 예상되며, 각종 파생 인쇄물은 물론 디지털 영상들도 봇물이다.

'탐라순력도가 있어서 제주가 더욱 제주답다'라는 말이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었다. 제주는 탐라순력도에 근거해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제주목관아 복원을 완성했다. 복

원된 제주목관아는 육지의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국의 관아들이 대부분 훼손됐고, 주변의 지형지물조차 크게 변한 마당에 320년 전 관아 건축물의 모양과 위치와 명칭이 고스란히 담긴 상세한 도면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고 한다.

탐라순력도는 병와 선생이 1702~1703년 제주목사로 재직 시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주문해 그린 화첩이다. 서문 2면과 그림 41면으로 구성돼 있다. 그림들은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 동안 실시한 순력(巡歷)과 1702~1703년에 시행된 도내의 행사 장면을 기록했다.

화첩의 크기는 가로 36.4cm 세로 56.9cm이다. 표지가 비단 바탕에 금가루를 입혀 제작됐고, 모두 43면의 화려한 채색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어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화면 상단에는 4자의 제목이 적혀 있고 중간에 그림이 있으며 하단에는 물산(物産)과 행사에 대한 설명이 기록돼 있다. 탐라순력도는 영천의 병와유고에서 300년 가까이 보존돼 오다 1998년부터 제주시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官衙) 건물, 군사 시설, 지형, 목장, 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된 사료다. 실증적인 지리 정보와 제주의 군사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주도 역사, 풍속, 전통 연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평가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2월 보물 제652호 중 하나였던 탐라순력도에 대해 국보 승격 심사를 신청하고, 탐라순력도 고화질 이미지를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제주도가 탐라순력도와 더불어 이를 제작해 보존한 당시 제주목사 병와 선생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킨 것도 확인됐다.



# 영천의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제주에서 꽃피운다

탐라순력도 국보 심사가 문화재청에 2년 이상 오랫동안 계류돼 있다. 제주도민들은 문화재청이 조속한 시일에 탐라순력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온 국민이 사랑하는 국보 문화재로 인정받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실학의 선구자였던 병와 이형상

병와 선생은 제주목사 겸 제주진 병마수군절제사 지위를 제수받아 1702년 3월에 제주에 부임, 1703년 5월 제주를 떠났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는 부임 기간인 12개월 동안 제작된 것으로 화공 김남길이 순력과 각종 행사에 참여해 주요 지리 정보와 행사 장면을 스케치해 두었다가 후에 화점을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효령대군 10대손인 병와 선생은 1677년 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관료이자 학자다. 은퇴 후 영천의 호연정에 머물면서 저술 활동에 집중해 188종 4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남겼다. 그중 중요한 수고본 저작이 추려져 보물 652호로 지정됐다. '수고본(手稿本)'은 손으로 직접 쓴 책을 말한다.

탐라순력도 외 보물 제652호는 선후천(先後天), 악학편고(樂學便考), 악학습령(樂學拾零), 강도지(江都誌),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 둔서록(遯筮錄), 복부유목(覆類目), 정안여분(靜安餘墳), 동이산략(東耳刪略)이다.

현재 영천시 호연정에 거주하는 병와 10대손 이임팔 병와공중회 총회장이 보물과 병와금, 인장류, 판목류, 지휘경 등을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병와유고 상당수 책자는 성균관이 소장하고 있다.

병와유고는 성리학 분야뿐 아니라 지리학, 역사학, 역학, 예악, 시문 등의 영역을 고루 포괄하고 있어 조선 후기 국학(國學) 연구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17세기 말 18세기 초 지식인 문사의 학문에 대한 실증적 사료로서 초기 실학의 정수가 담긴 책으로 평가된다.

대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부친이 병와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아버지를 따라 와 병와 선생을 만난 적이 있는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병와 선생을 실학의 선구자로 표현했다.

병와유고 중 제주도와 관련된 것은 12종 서책과 백여 편의 간찰과 병와금(瓶窩琴, 국가민속문화재 제119호) 등이 있다. 탐라순력도는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남환박물',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탐라록을 추가로 확보해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란 명칭으로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했다. 또한 150여 편의 이형상 간찰도 소장 중이다.

## ◇마음은 제주에 두고 육지로 왔다

320년 전, 1703년 초봄, 병와 선생은 부임 1주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문서를 받았다. 조선 조정에서 보낸 파면 문서였다. 당시 제주는 육지와 뱃길이 전면적으로 끊겨 있었기에 병와 선생은 문서를 받고도 배편이 마련될 때까지 얼마간을 기다리다 육지로 떠났다.

숙종(肅宗, 조선 제19대 왕, 재위 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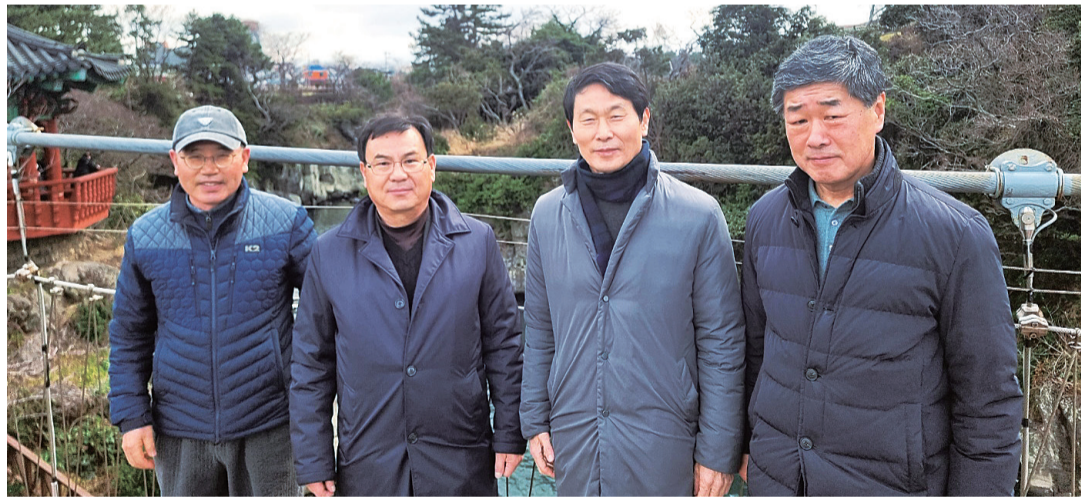
**'탐라순력도'가 역어가는 제주도의 새 역사 만들기 국보 심사 앞두고 영천과 공동 학술·문화 사업 기대**  
**제주도의 '병와 이형상 선생' 재조명 사업 활발**  
**오는 6월 제3회 '병와 이형상 전국학술대회' 개최**  
**- 성균관-제주대, 병와연구소 학자들 논문 발표**  
**병와 이형상 선생 학문적 가치 재발견 기대 모아**



별방조점, 현재 별방진의 성곽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



용연, 병담범주가 행해졌던 장소



우로부터 허남춘 단장, 박규홍 소장, 이학용 부이사장, 이임팔 총회장



우로부터 박용범 학예과장, 박찬식 박물관장, 이임팔 총회장, 박규홍 소장, 허남춘 단장, 이학용 부이사장

1720년)은 병와 선생에 대한 사간들의 여러 차례 탄핵에도 애써 거절해왔다. 탄핵 사유는 병와 선생이 제주목사로서 유배자를 보살폈다는 것이었다.

결국 실록에는 왕의 탄핵 유히(允許)에 정작 아무런 사유를 달지 않아 숙종이 어쩔 수 없이 선생을 파면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그 유배자는 다름 아닌 오시복 전 이조판서였다. 오시복(1637~1716)은 병와 선생보다 17년 앞선 인물로 남인에 속했다. 그는 숙종 시기에 한성부판윤(현 서울시장), 호조판서(현 경제부총리), 이조판서(현 행안부장관)를 지냈다. 병와 선생은 그에게 정책의 자문을 구했고, 물심양면으로 그와 교류했다. 탐라순력도의 제작도 '이토록 장엄한 광경을 화폭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유가 있었다고 오시복 간찰에 나와 있다.

이들은 간찰을 없애기로 하고 서로 주고 받았다. 오시복은 간찰이 발각되면, 이 목사에게 화가 미칠까 봐 모두 폐기했다. 하지만 병와 선생은 그것들을 없애지 않았고 일체 감춰다. 이에 3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존됐고, 제주도는 그것들을 모아 번역, 편찬 사업을 펼쳐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최근 오시복이 병와 선생에게 보낸 간찰이 수집되면서 탐라순력도가 제작된 경위와 숨겨진 이야기들 상당수가 속속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병와 선생이 제주 관련 기록물을 제작,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천에 돌아온 병와 선생은 제주 관련 서적을 상세하게 완성했다. 선생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모든 기록물을 빠짐없이 보존해 오늘에 전하도록 했다.

병와 선생은 탄핵당해 육지로 가는 배에 오르면서도 마음만은 제주도에 남겨뒀다. 탐라순력도 호연금서(浩然琴書)에는 병와 선생이 보길도를 돌아 나오면서 드높이 솟은 한라산의 모습을 보며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생각하는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다.

## [끝맺음]

400권에 육박하는 방대한 병와유고 ... 이번 6월에 개최 될 제3회 '병와 이형상 전국학술대회'에는 성균관대학교, 제주대학교, 병와연구소의 학자들이 8편의 논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 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병와 이형상선생의 학문적 가치가 새롭게 밝혀질 것을 고대하면서 동시에 영천시의회와 영천시 및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기대한다.



별방조점이 있었던 별방진에서 우로부터 고영철 전 교장, 이학용 부이사장, 이임팔 총회장, 박규홍 소장





##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로봇캠퍼스, 개교 후 66명 첫 졸업(학위수여)식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4개과 2년제 학위수여... 올해 첫 졸업생 취업률 90%

지난 2021년 첫 개교한 국내 최초 한국폴리텍 로봇특성화대학(학장 이연보) 영천 로봇캠퍼스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학은 지난 8일 교내 로봇관 콜레보토리실에서 졸업생 66명의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학은 이번 졸업생의 과반

수가 만 25세 이상의 U턴 입학생으로 현대로보틱스, 두립야스카와, 화신, 로봇산업 유망 기업 및 중견·공기업·공무원 등에 90%의 취업률(대학 자체 집계 기준)을 달성했다. 2023년도 신입생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영천로봇캠퍼스는 영천시 운동장로 111(화룡동 989) 일원 8만여㎡에 35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4,300㎡의 대학본부, 공학관, 기숙사가 완비해 2020년 6월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2년제 학위과정)를 받아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등 4개 학과에서 각 25명씩 신입생 100명으로 지난 2021년 3월 첫 개교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2월 24일까지 공모

영천시는 이달 24일까지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2023년 영천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모해 청년정책과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지역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지속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총 4개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1명 60만원, 장려 2명에게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모기간 내 이메일(chancop6699@korea.kr) 또는 우편(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으로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054-330-6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 화북면, 따숨가게 2곳 추가... 현판 전달

영천시 화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노명)는 지난 16일 따숨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따숨가게는 '두마리 치킨'(대표 석연기), '보현산 통닭'(대표 재미경)이다. 화북면 따숨가게는 기존 솔밭식당, 상송삼거리식당, 도립슈퍼, 백

송식당 등 4곳으로 추가 된 곳까지 모두 6곳이다. 따숨가게는 생활밀착형 가게에서 기부한 무상이용 쿠폰, 물품 등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사업으로 지역 중심의 나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금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 복지발전 회의

영천시 금호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최상국)는 21일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해 2023년도 제1차 금호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금호읍 맞춤형 복지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분금) 지원 사업인 저소득 밀반찬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성금모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효정 기자

## 고경면 고도2리 박진권 이장, 이장직 40년 뒤로 하고 물러난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40년 장기 집권 고도2리 박진권 이장이 공식 이장직 사임을 선언했다. 고경면(면장 최재열)은 지난 15일 1982년 35세로 마을 일을 시작해 올해 76세로 40여년 장기 이장생활을 마감하고 사임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함께 고도2리 외에도

대성리, 전사2리, 동도리, 삼산리, 파계리 등에서도 이장 6명이 사직해 같은날 고경면 행복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6명의 신임 이장을 임명한다. 고경면 고도2리는 50여 세대(100여 명 미만 주민)가 거주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대기질 개선 소규모 사업장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영천시는 지난 9일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공고일 현재 영천시 소재 4·5종 중소사업장이며,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소사업장에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저녹스버너 등의 설치 및 개선(교체) 지원이다. 시의 총 예산은 14억 4000만원

(국비 8억, 도비 1억9200만원, 시군비4억 4800만원)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10%는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또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개강

###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조기 정착·생활 적응 도움

영천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아)는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수강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지난 13일 개최했다. 매년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또 읽기·듣기·쓰기 등의 실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으로 한



국생활 조기 정착과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영천시가족센터는 사례관리, 가족문화프로그램, 방문교육지원,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금호체육관, 환경 개선에 5000만원

### 조명 10년만에 LED로 교체 CCTV도 새로 설치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소장 양광환)는 쾌적한 환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난 2일부터 금호체육관 환경조성 공사를 시작해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체육관 조명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300LUX에서 LED조명 500LUX로 상향 교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관리를 위해 CCTV도 새로 설치했다. 영천시는 "그동안 조명시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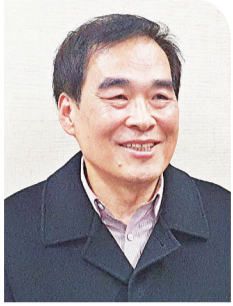
10년이 넘는 시설로 어두워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금호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 등의 동호회와 각종 단체에서 대관해 체육 및 문화 활동공간과 금호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농구, 피구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임종택의 『숲과 人間』 ⑤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 전 세계 1과 1속 1종, 수 억년 유전자 변형 없어



임종택

人間이 나무에서 배워야 하는 겨울나무 이야기

◆詩人 신경림... 『나무를 길러 본 사람만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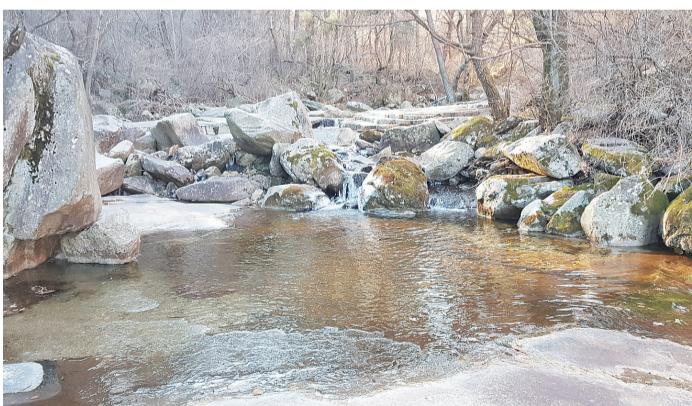
/나무를 길러 본 사람만이 안다  
 /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 너무 잘 나고 큰 나무는  
 / 제 차례하느라 오히려  
 /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 또는 못나고 불품없이 자란 나무에  
 / 보다 실하고  
 / 단단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나무를 길러 본 사람만이 안다  
 /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 동무 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 휘방한다는 것을  
 /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2018.2. 시인 신경림의 시.



겨울숲을 찾는 등산객-숲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매개체다



물이 흐르는 계곡에는 음이온이 많이 존재한다



잘 정리된 조림지 숲길은 산림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토의 겨울을 견디는 나무

한 곳에서만 죽을 때까지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의 속명은 어찌보면 안타깝다. 그러나 나무는 상처를 입을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형질을 또렷하게 나타낸다. 동토의 겨울은 나무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다. 어찌 나무에게만 고난의 시간일까.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동물의 경우는 혹한의 시간과 공간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무는 오직 한 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무정한 자연 환경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선사시대부터 수 많은 동물종들이 멸종해 왔던 반면에 나무는 종(種)의 분화와 진화로 현재는 훨씬 다양하게 지구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나무는 동물보다 더욱 교묘하고 지혜롭게 진화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나무의 기능이 밝히는 자연의 절대 진리

어느덧 겨울은 막바지를 향해 저물어 가고 나무는 땅 속에서부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사이토키닌(cytokinin)이라는 호르몬이 땅속의 온도를 감지해서 뿌리가 그동안 멈추고 있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야겠다는 신호를 접수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가지 끝의 눈(芽)에서 만들어지는 옥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 이 신호를 받게 된 눈(芽)은 일제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잎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잎이 만들어지고 가지로 자라날 운명이 있으면 가지로 자라 자신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운명을 가진 눈은 온갖 다채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이 자연의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온도와 빛과 강우량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이는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다.

식물은 더욱 다양하게 분화해서 지구 표면을 덮는다. 환경에 의해 반응하는 다양한 나무의 변화 중에 꽃을 피우는 기관인 꽃눈(花芽)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동물과 반대로 식물 생식기는 외부에

움직일 수 없는 나무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꽃눈(花芽)을 한겨울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 동물과는 달리 식물은 생식기를 외부에 지니고 있다. 동물은 몸 깊숙이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부드러운 곳에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바로 스스로 수정을 할 수 없어 다른 동물이나 매개물, 즉 곤충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인데 얼핏 생각하면 동물보다 손해일 것 같지만 나무는 수십 수백 개의 자신의 생식기를 노출시켜 어느 정도 자식(종자)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곤충을 유혹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진화시켜 왔다.

곤충이 잘 식별할 수 있는 화려한 색깔이나 곤충이 좋아하는 달콤한 꿀을 생산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곤충이 앉을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자신의 생식기 주변을 변화시켜서 매개충인 곤충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댓가로 수분과 수정이라는 확실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다. 여기서 수분이란 꽃가루받이로 수꽃의 정

자(화분)가 암술 머리에 붙는 것을 말하고 수정은 암술머리에 붙은 화분(정자)이 밑씨 속의 극핵과 알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의 시작은 꽃눈의 분화에서

이러한 진화 덕분에 나무는 오랜 세월 끊임없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켜 왔다. 이 모든 결과의 시작은 꽃눈의 분화다. 식물들이 이듬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시기는 여름부터 시작한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자신의 조직 일부를 꽃눈으로 분화시키는 것이다. 후손을 남기기 위해 거의 9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꽃눈이 만들어지면서 그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체로 꽃눈은 혹독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바람막이인 인피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털이 많은 이불을 덮고 있는 셈이다. 인피층의 가장 바깥 부분은 가느다란 솜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는데 추위를 견디기 위함이지만 개화를 위해서 추위의 양과 함께 온도가 개화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산이 귀한 것은 그곳에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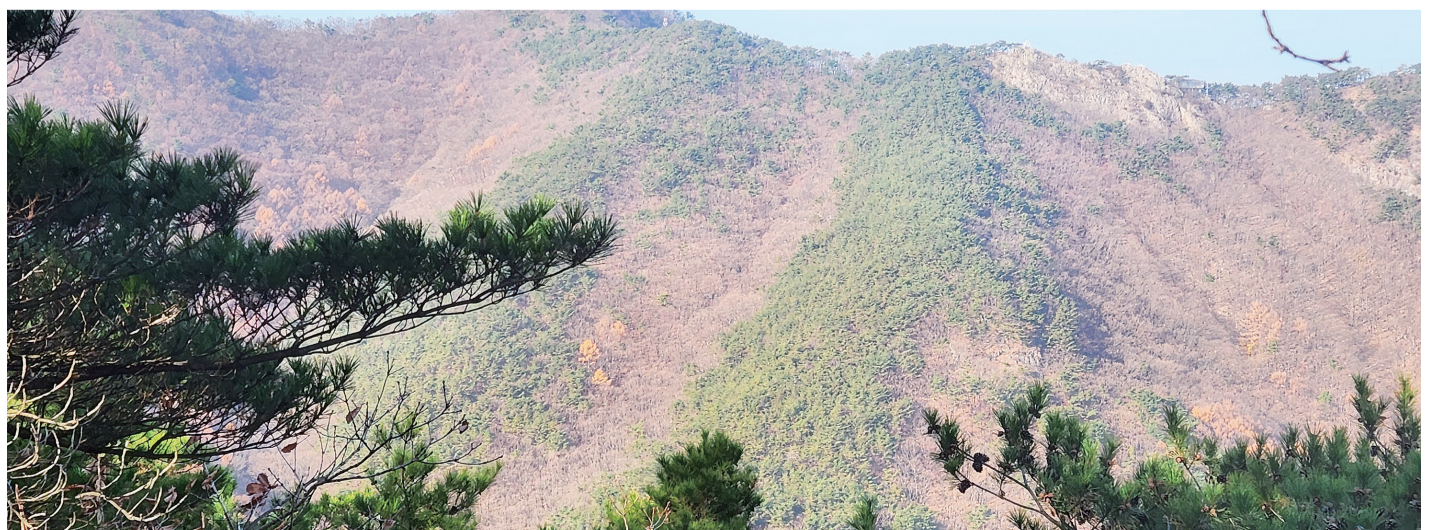
이런 모습을 보면 나무는 참으로 경이롭다. 나무는 극한의 환경을 정면으로 맞서한다. 그러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인간의 어설픈 호기와는 다르다. 자연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극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조들은 이러한 나무의 속성을 잘 알기에 나무를 신성시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은 '산고고불귀 우수위귀(山高故不貴 有樹爲貴)'라고 했다. 산이 높다고 해서 다 귀한게 아니고 그곳에 나무가 있어서 귀하다는 의미다.

◆영천의 시목 은행나무... 원자폭탄에도 살아남았다.

영천의 시목(市木)은 은행나무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5년 일본은 원자폭탄 두 발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 이때 히로시마 어느 절 근처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도 은행나무는 유일하게 살아 남아 현재 일본의 국운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 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1과 1속 1종으로 수 억년 전의 모습과 똑같이 유전자의 변형없이 가을이면 만남과 이별의 서정적 문학의 소재로 우리의 삶 깊숙히 추억의 나무로 기억되고 있다. 무한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가진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꽃이 피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려 본다.

◆상춘객(賞春客)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는 손님으로 온갖 꽃들을 반기지만 정작 어둠속 고난을 뚫고 환하게 웃음지으며 나타나는 꽃들에게 상을 줄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지, 상춘객(賞春客)이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선사해준 봄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꽃눈을 바라보며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지금의 이 힘든 시간들도 견뎌내야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자. 시인 문정희는 나이에 관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고 고백한다. 겉으로 드러난 나이가 아닌 나무처럼 내면속에 새기기로 했다고...



침엽수와 활엽수의 끊임없는 경쟁과 천이의 모습



# 영천시 고경초등학교 4~6학년 “우리도 튀르키예 지진 돕고 싶어요”

## 튀르키예 지진 성금 16만 원 전달 교내 환경체험 수익금으로 마련해

개교 96년 역사 경북 영천고경초등학교 4~6학년 동아리 학생들이 튀르키예 지진을 돕기 위해 16만원의 성금을 학교측에 기탁했다. 고경초등학교(교장 석장근)는 17일 교내 ‘이브니’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이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교내 자체 생산된 친환경 달걀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

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경초는 ‘2022학년도 탄소중립 시범 학교’로 선정되면서 환경보호 체험교육 일환으로 닭, 토끼를 사육과 상추, 고구마 등 채소 텃밭 가꾸기로 소소한 수익을 얻고 있다. 학교측은 “동아리의 이번 튀르키예 지진 성금 기부는 ‘이브니’

환경동아리 4~6학년 학생들의 주축으로 어린 학생들이 “우리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돕고 싶어요”라며 지진 피해의 아픔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고경초등학교는 1927년 고촌공립 보통학교로 설립해(4년제) 1996년 교명을 고경초등학교로 변경하면서 현재 초등 7학급(일반6, 도움반1)으로 이 중 4~6학년 모두 25명이다(전교생 40명 '22년 12월 기준) 김효정 기자



# 영천시자원봉사센터,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옷 등 중고 물품 총 17박스 전달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가 튀르키예 지진 구호에 발 벗고 나섰다. 봉사센터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4일간) 겨울용 의류 및 방한용품, 여성용품, 침낭 등 구호물품 총 17박스를 마련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기부처에 전달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앞서 지진이 일어난 지 2주일 만인 20일(현

시시간) 규모 6이 넘는 여진이 또다시 발생해 추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또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구호물품을 접수받을 예정이었으나 인천 구호물품 창고가 부족해지면서 헌옷 및 중고 물품은 제한돼 구호품 수집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구홍우 영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 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자조모임



영천시보건소는 지난 14일 신녕부녀경로당에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AI·IoT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행태개선 및 지속 가능하도록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임은 대면으로 실시돼 건강 정보 나누기와 특별미션 진행사항 확인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근력 및 유연성 운동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 영천교육지원청, 원비 안정화 유치원 점검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1일 원비 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 했다. 교육지원청의 이같은 점검은 2023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전체

적으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원청은 무분별한 원비 인상 방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에서 지원청은 ▲ 원비 인상의 사유 및 근거 ▲ 원비 구성 항목의 적정성 ▲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여부 ▲ 유치원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재무·회계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북안면 우성 케미칼 5명 전입

영천시 북안면(면장 오영호)은 지난 20일 관내 기업체인 우성케미칼(대표 박병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시에서 진행하는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위해 북안면은 임직원들 중 타지 거주근로자와 기숙사 등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고 이날 기업체 대표부터 직원 5명이 주소를 북안면으로 이전

했다. 면은 이번 현장방문이 관내 기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오영호 북안면장은 “영천시에 일자리를 갖고 있음에도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숨은 인구들이 많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경영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영천시 인구도 늘릴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 김용문 의원 [5분 자유발언]

## “교육 인프라 조성 등 매력적인 배후도시 만들어야”

김용문 의원이 영천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 슬로건에 제동을 걸었다. 영천시의 인구정책 중 ‘아이 낳기 좋은 영천’은 일부 성공했으나 반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인프라 부재로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영천시의 정책 준비를 꼽았다. “지역의 미관과 생활환경들을 개선하고 교육에 유리

즉, 아이 낳기든 아이 키우기든 아니면 인구증가 정책 등 근본적 본질은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 갈 길 멀어 아이 낳고 키우는 것 보다 일자리 창출 우선 인구증가 근본적 본질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을 위해서는 군부대유치, 경마공원 개장 등 요란스런 구호보다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 의원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인근 대구나 경산의 매력적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인구유입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인프라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한 학교 인프라 조성 등 매력적인 배후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은 기업의 유치는 지금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며 영천시의 기업유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김용문 의원은 “각종 세제 혜택 및 전입 장려책으로 당장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시대에는 결국 인구 돌려막기 밖에 안 된다. 우리 영천시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며 과감한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최기문 영천시장 이중적 시정 홍보 '맹질타'

영천시사회안전, 전국 184개 지자체 중 181위 꼴찌 영천시, 사회안전 6개 항목 종합 꼴찌 등급인 E등급 새벽 (시민)관광버스 올라 큰절 치적 홍보 이제그만 김상호 의원,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 구성이 우선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이중적 시정홍보에 대한 시의원의 질타가 지역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를 만들어놓고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이라며 허구적 홍보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꼴찌 사회안전지수 성적을 받아들이고 새벽마다 관광 떠나는 시민들의 버스에 올라 큰 절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포함된 질타로 풀이된다.

이같은 질타는 지난 15일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 5분발언을 통해 김상호(사진) 의원이 "영천시민은 안전하고 행복한다?"라는 주제로 촉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충북대 위기관리연구소와 KST공공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84개 시·군·구 사회안전지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김상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회안전지수가 전국에서 꼴찌인 (살기 싫은) 영천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사회안전지수 전국 꼴찌 성적표로) 더 나은 지역으로 떠나려는 시민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최 시장을 향해 이같이 작심 비판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가지 지표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 조사 결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 사회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 5개 항목에서 5년 연속 줄 곳 최하위 4~5등급으로 안전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았다.

나머지 단 1개 항목인 범죄 분야에서도 최근 5년 동안 2~3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전체 181개 지자체 중 총점 44.77 점으로 꼴찌인 181위 종합 E등급을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의 5분발언 발표 자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김상호 의원은 이날 최기문 영천시장을 향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이라 외치고 있는냐며 (사실상 일보다 사전 선거운동에 더 열중) 이 같이 질타했다. 대 시민을 향한 위선적 홍보라는 의미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질타는 「최기문 시장이 이른 새벽부터 관광버스에 올라 시민의 안녕을 여쭙고, 각 읍면동을 돌며 엉터리 치적을 홍보·자랑하며 큰 절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맹 비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같은 꼴찌 사회안전지수로 추운 아침부터 '살기 좋은 영천'으로 오라며 (주소옮기기 홍보를 위해) 자동차매연 가득한 도로로 공무원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시장님 주재 하에



연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22	5	5	2	4	5	4
2021	5	5	3	4	5	4
2020	5	4	3	4	4	5
2019	4	4	2	4	5	5
2018	5	5	2	4	5	5

출처 : 행정안전부

각 부서와 유관기관인 소방, 경찰과 함께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을 구성이 우선이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상호 의원은 또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축제, 체전, 대회 등의 행사와 사업보다 먼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 기 위한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면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개선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권기한 의원 [시정질문]

## 운영비23억·수익7억원 문화예술회관 꼭 필요한가

1200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운영비 23억원을 들여 수익은 7억원 고작인데 인구 10만에 791석 규모 영천 시민회관을 두고 겨우 200석 더 많은 1000석 새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중복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영천시에 수백억원이 투입된 화랑설화·한의마을과 전투메모리얼파크 등도 적자에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시민 접근이 용이한

**청소년 미래교육 문화교육복지센터 우선 해야 문화예술회관 건립 '찬성하라' 여론 문자 폭탄 -최소 10명, 단독방 전달하라 지시 누가 했나 건립비용 산출 근거, 물가상승률 40% 적용 왜**

부당성을 강조했다. ▲인구 50만 포항시는 운영비 24억원에 수입 6억원, ▲인구 15만 안동시는 운영비 38억원에 수입 8억원, ▲인구 7만 문경시는 운영비 21억원에 수입 6000만원으로 최기문 시장이 답변한 신설 회관 운영비 23억원에 수입 7억원으로

는 당장 건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반박이다.

여기에 최 시장은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

반박으로 건립 강행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역시 건립 반대에 분명한 방침을 찍었다. 좌석 규모가 영천시민회관(791석)보다 문화예술회관(1000석)은 의미가 부족하고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보다 대부분 국·도비로 청년들의 미래교육을 담당할 경북교육청 문화교육복지센터 건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또 영천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뿐 아니라 교육청 문화교육복지센터는 공무원 100여명이 상주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비 증가로 지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문화예술회관 대신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교육청 문화교육복지센터가 우선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 의원은 "시민들이 원해서 건립해야 한다"는 영천시의 주먹구구식 건립타당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영천시가 건립하려는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단언하듯 영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한 사안인지 다시 고민해 달라고 했다.

본지가 2015년~2022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1.94%였다. 7년간 물가상승률(누계)을 모두 합해도 13.6%에 불과했다. 2015(0.7%), 2016(1.0), 2017(1.9), 2018(1.5), 2019(0.4), 2020(0.5), 2021(2.5), 2022(5.1) 그러나 권 의원은 인근 도시 문화예술회관의 인구대비 운영실태를 비교해

박주학 의원 [시정질문]

## 영천시의 해외 감초사업 진위 여부 밝혀낸다

영천시가 2014년 실시한 해외농업개발사업(키르키즈스탄 감초재배)이 9년이 지나도록 생산 실적이 전무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자 박주학 의원이 사업의 진위 확인을 위한 시정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실제 해외 감초사업의 계약 실체가 있는지, 실패한 사업재배를 재배 성공이라고 허위보도를 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현지 조사 용역 결과 2~3년 시범포 운영 후 사업개시를 해야 한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 자부담 및 보조금 지원 내역, 사업의 계속 여부 등 5개항의 현실적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의 이같은 날카로운 시정질문은 사업 실체도 불분명하고, 시간 끌기 유야무야 9년 동안 전무한 실적 뿐 아니라 각각 다른 관련 서류 등 의혹이 증폭하는데다 당초부터 위장이거나 거짓으로 보조금 먹튀로 의심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 당초 총사업비는 영천시 예산 6억원과 보조사업자 자부담 6억원 등 12억원이 투입됐으며, 감초생산단지 조성 후 현지 합작법인 설립으로 (감초) 가공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 사업 개시 전에 영천시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냈지만 현 보조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해 영천시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영천시, 실패한 감초재배 성공했다 허위보도 시범포 운영 무시하고 서둘러 토지 임차 왜? 단독 보조사업자 선정한 영천시농정심의회? 임차료 전액 지불 외국환 거래계산서 신뢰?**

후 아직 계약기간이 2년여 남아있는것과 관련해 최 시장은 ▲ 보조사업자와 영천시가 빠른 시일 내 현지 출장으로 사업성 검토와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최 시장의 이같은 답변에는 제기된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못했다. 총사업비 12억400만원의 사용 진위, 감초 가공공장 건립 무산 원인, 현 보조사업자 단독 신청에 농정심의회의 선정 내역, 보조사업자가 직접 토지 임차를 할 수 없는데도 이중으로 제3의 현지 면장을 임대인으로 만든 2중 계약 등에 대한 의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주학 의원은 "영천시가 현지 조사 용역결과가 '감초재배 성공 불확실'이라고 판정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자신이) 시정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묻힐뻔 한 사안이다"면서 쉬쉬하고 덮으려는 영천시의 감추기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영천시가 현지 출장 후 이번 해외 감초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에 부정적 결론을 내리면 해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현지 감초재배지 토지 임차와 관련해서는 ▲ 키르키즈 현지법상 외국인의 토지 임차가 불가능해 1차 현지 면장이 먼저 임차한 후 그 면장과 보조사업자간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2014.3.1과 2015.3.25 두 차례에 걸쳐 2중 계약을 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임차료는 외국환 거래계산서 확인 결과 전액 지불되고 계약서는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2015년 계약 후 아직 계약기간이 2년여 남아있는것과 관련해 최 시장은 ▲ 보조사업자와 영천시가 빠른 시일 내 현지 출장으로 사업성 검토와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최 시장의 이같은 답변에는 제기된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못했다. 총사업비 12억400만원의 사용 진위, 감초 가공공장 건립 무산 원인, 현 보조사업자 단독 신청에 농정심의회의 선정 내역, 보조사업자가 직접 토지 임차를 할 수 없는데도 이중으로 제3의 현지 면장을 임대인으로 만든 2중 계약 등에 대한 의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주학 의원은 "영천시가 현지 조사 용역결과가 '감초재배 성공 불확실'이라고 판정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자신이) 시정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묻힐뻔 한 사안이다"면서 쉬쉬하고 덮으려는 영천시의 감추기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영천시가 현지 출장 후 이번 해외 감초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에 부정적 결론을 내리면 해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 제24대 영천시재향군인회 조규창 신임 회장 취임



경북 영천시재향군인회 제24대 신임 회장 조규창이 10일 영천 스타컨벤션웨딩 지하1층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23대 신성철 회장은 이날 이임 했다.

신임 조 회장은 지난 1월 27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총 대의원 144명 중 8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9표(60%)를 얻어 제24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하기태 의장과 시의원, 서정오 향군 경북도육군부회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읍·면·동 청년·여성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조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특히, 자매결연단체인 전북남원시 재향군인회장 및 여성회장이 축하차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임 조규창 회장은 "전임 회장의 업적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제대 군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회원간 친목단합과 지역민 안보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 추진하겠다"며 취임사를 했다. 박한우 기자

## 이선희 도의원,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예산 투명성 확보·혈세 내실화에 노력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지난 9일 '2022 대한민국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지방자치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에 공이 큰 인물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다.

이 의원은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예산 낭비를 막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집행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내실화에 노력해왔다.

또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받았다. 김효정 기자

## 하기태 시의회의장, “저소득 주민 자활근로 안정 돕겠다”

영천지역자활센터  
정월대보름행사장 찾아 격려

영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홍순찬)는 10일 오후 자체 정월대보름행사를 실시해 자활참여근로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인절미 만들기, 화합한마당 등으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번 정월대보름행사는 올해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이 일찍 지나가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은 명절분위기를 느끼지 못해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등 별도 의전을 두지않아 최기문 영천시장 및 하기태 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들은 축사 없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과 간략한 격려와 덕담만 주고받았다.

영천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천YMCA가 간병, 청소, 영농, 봉제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창립해 올해로 22년 째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



활근로사업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지난 2021년 홍순찬(제5대) 센터장이 취임해 10여명의 직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여섯개의 자활기업을 포함해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사업, 사회서비스사업 등에 모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기태 의장은 이날 "그동안 코로나19 및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하고 "저희 회의에서도 저소득 주민들이 근로를 통해 안정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덕담했다.

장지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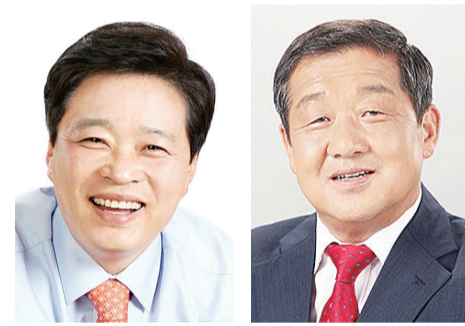
## 도의회 이춘우·이형식 의원, 지방자치 우수 조례상 선정

이춘우,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이형식,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

경북도의회 이춘우(영천)·이형식(예천) 의원이 나란히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제정) 심사에서 각각 최우수와 우수상에 선정됐다.

두 의원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개인 부문에서 이춘우 의원은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이형식 의원은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각각 최우수와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이춘우 의원의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



도의원 이춘우

도의원 이형식

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평가다.

또 이형식 의원은 조례는 경상북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심사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이춘우 의원은 영천시의원 3선 출신으로 도 의원으로는 재선 의원이다.

또 우수 조례 이형식 의원은 역시 지방자치 예천군 3선 의원으로 예천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륜으로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행안부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등급 받아

최우수-천안시·울주군·광주북구·인천시  
우수-지자체 중 19개 시, 21개군, 17개 구

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상위 25%에 들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앞서 16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및 확산 국민체감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천안시,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자체에는 최우수기관, 영천시, 파주시, 김해시 등 6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 61개 우수기관 중 상위 25%에 들어가는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인천광역시 4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천시는 ▲기관장 혁신 리더십 ▲협업추진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4가

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17일 영천시가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특전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범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영천시가 끊임없이 혁신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지수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시 주의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일부 손해배상금  
가해자, 보험회사서 합의금 수령할 수도  
운전자차량소유자 연대 배상 청구 가능  
합의서, '후유증 발생 등 추가청구' 명시

**문** 저는 신호를 위반한 甲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甲이 합의를 사정해 응해줄까 생각 중이다. 혹 교통사고 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답**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발생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는 그 합의가 감안 되어 형사재판에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형사합의 불발 시 가해자는 부득이 합의금을 공탁 하게 되는데 공탁과 형사합의는 차이가 많다.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단서없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금은 원칙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게 된다.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합의금 만큼 공제당할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는 '위로금조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별도', '위자료 명목으로'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반대로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된다.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의 보험금지급 청구권까지도 채권양도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 중에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공제당하고 나머지의 금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피해자는 자동차의 운전자뿐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나중에 후유증 발생이 예상되면 '후유증 또는 장애 발생시 추가청구 가능' 등 휴유증 단서규정을 두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의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미리 합의서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둬으로써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형사피해자는 합의서 작성할 때 한번 합의는 번복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윤영민 회계문답]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부동산 증여세 절세 방안...

장래가치 상승 부동산 미리 증여

1인 보다 2인 나눠 증여 절감효과↑↑

10년 동안 증여재산 합산 산출한다.

증여공제 한도 5천만원 단 한 번만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증여인데, 증여제도 구간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공제의 한도는 5천만원을 한번만 공제한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예를 들어 1차 증여를 15년 전에 하고 2차 증여를 7년 전에 했다면, 1차 증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차증여는 제척기간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증여일부부터 2차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이므로 2차 증여분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증여세 절세의 방안 중에 하나로 장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합산은 10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10년 후에는 다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위에서 나온 것처럼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2인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억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자녀 2인에게 각각 5억씩 증여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9천만원으로 합하면 1억8천만원으로 6천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우종철 칼럼



우 종 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조선 세계화’의 비조(鼻祖), 연암 박지원  
(法古創新·법고창신) "옛것 본받아 새 창조"

지난달 “2년 안에 미국이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마이클 미니헌 미 공군기동사령관(4성 장군)의 메모가 워싱턴을 뒤집어놨다. 이 같은 미·중 패권전쟁의 현실화로 불확실성의 격랑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경제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가치동맹’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1990년대에 구축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우과는 세계화가 중국·러시아 같은 적성국의 팽창을 초래했다고 반성하고 있고,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며 ‘탈(脫)세계화’에 동조하고 있다. 이제 탈세계화의 탁류(濁流) 속에서도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기업은 손을 잡고 변화의 물결에 빨리 편승하는 추격자 DNA를 되살려야 한다.

병자호란은 인조의 ‘삼전도 치욕’으로 조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를 품게 했다. 이에 북쪽 오랑캐를 쳐서 복수한다는 이데올로기인 ‘북벌론(北伐論)’이 조선을 지배했지만, 국제정세는 다른 양상으로 흘렀다. 이 시기에 청의 앞선 문명과 기술을 받아들여 조선 사회를 개혁하자는 ‘북학과(北學派)’의 활동은 개방적인 자주 의식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소산이었다. 북학 사상의 진정한 승리는 230년 후의 ‘세계적인 한류 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18세기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대문장가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중미(仲美), 호는 연암(燕巖)이다. 1737년 한양에서 박사유와 함평이씨 사이 2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마이클미니헌, "2년 내 미·중 전쟁" 예언  
세계질서 = 경제보다 안보동맹 우선  
적성국 팽창 <D>‘탈(脫)세계화’ 대결  
연암 박지원, "옛것 본받아 새 창조"

32세 때 백담(白塔, 탑골공원) 근방으로 이사 가서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등과 교류했다. ‘백담정연(白塔淸緣)’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용후생에 대한 깊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나갔다.

이들은 서로를 사림에 신분과 적서(嫡庶)와 나이를 초월하였다. 1777년(정조 1)에 연암은 벽파(僻派, 사도세자를 배척한 당파)로 몰리면서 황해도 금천의 연암협(燕巖峽)에 은거하였다. 연암이라는 호는 이곳의 지명에서 얻은 것이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이 창조해 내라(法古創新·법고창신).”고 한 연암의 가르침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창한 정약용과 ‘입고출신(入古出新)’을 강조한 김정희에게 이어졌다. 또한 이 학맥은 연암의 손자인 박규수와 대한제국의 개화파에 이어졌다.

길 위에서 사유하고, 사유하면서 길을 떠나는 ‘유목민’이었던 연암. 그는 1만인을 압도하는 기세를 가졌지만, 명리(名利)를 가까이하는 걸 두려워했다.

연암은 걸인의 절의와 양반의 허욕을 대비시켜 비판한 <광문자전>, 인분을 저 나르며 살아가는 민초의 삶에서 깊은 덕성을 발견하는 <예덕선생전>, 양반의 부패와 허위를 풍자한 <양반전> 등 11편의 소설을 썼다.

연암은 44세(1780, 정조 4) 때 친족 형 박명원이 건륭 황제 만수절(70세) 진하사겸사은사가 되어 청에 갈 때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동행했다. 6개월 간의 여행기인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세계화를 꿈꾸는 열망이 담긴 역작이다. 이 여정에서 남긴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등에 대해 창강 김택영은 “조선 역사 오천 년 이래 제일가는 명문장”이라 평했다.

연암은 이덕무의 문집 <영취고>의 서문에서 ‘조선의 시를 쓰라’고 일갈했다. “조선은 산천이며 기후가 중국과 다른 데도 글짓는 법과 문체를 중국에서 본뜬다면 아무리 고상해도 거짓될 뿐이다.”

중국 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朝鮮風·조선풍)’을 지킨 연암 선생을 경모한다.

軍官行色壯年行(군관행색장년행)  
下筆成文刮目成(하필성문관목성)  
法古創新追實學(법고창신추실학)  
厚生利用索豐亨(후생이용색풍형)  
靑邱開闢雲霓望(청구개벽운예망)  
碧海維新必出迎(벽해유신필출영)  
述者丁寧留世說(술자정녕류세설)  
五車日記越長城(오거일기월장성)  
漢詩=우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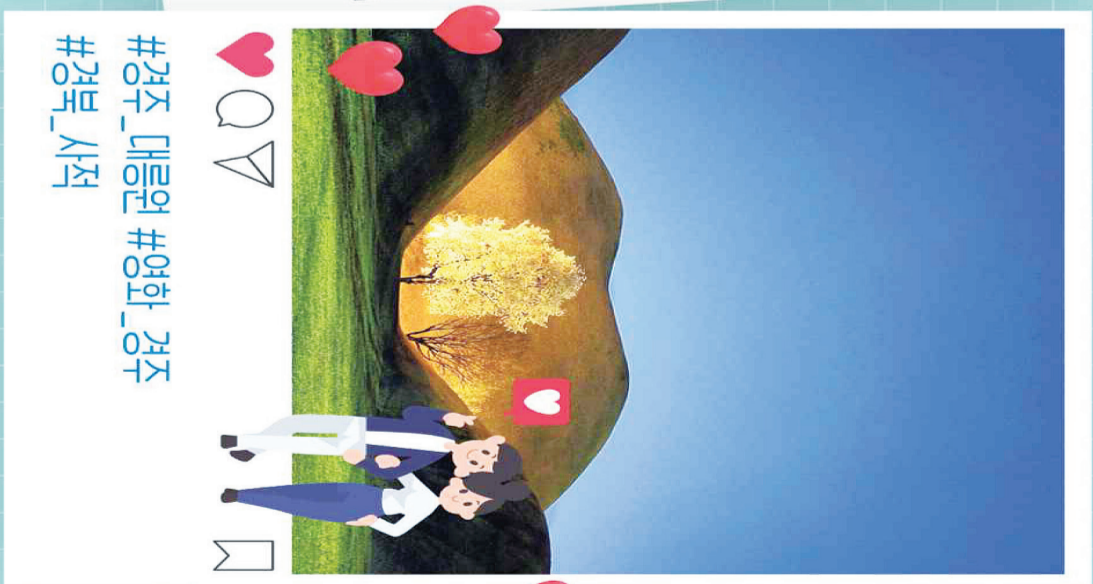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 경북의 문화재에서 내 인생샷을 찍어!



경북의  
문화재  
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의 문화재와 함께하는  
당신이 바로 드라마 속 주인공입니다

